



KG패스원 나라국어 이유진 교수 2015 국가직 국어 해설



수험생 여러분, 기회가 다시 돌아옵니다.

더 참고 달리면, 분명 잡을 수 있습니다.

- 나라

문 1. 어법에 맞게 쓰인 것은?

- ① 내일 야유회 간데요?
- ②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데.
- ③ 연예인을 보니 그렇게 좋던?
- ④ 제가 직접 봤는데 너무 크데요.

★ 정답: ③

★ 문항해결법: 한글맞춤법 - 적절한 어미

'-데': '-더라'의 준말로 과거에 직접 경험한 내용을 회상하여 일러주거나 묻고 스스로의 느낌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합니다.

'-대': '-다고 해'의 준말로 남의 말을 듣고 전달할 때 주로 사용하며, 놀라거나 못마땅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던': 해라할 자리에 쓰여,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입니다. '-더냐'보다 더 친근하게 쓰는 말입니다.

★ 정답 해설:

상대방이 경험한 사실(연예인을 봄)에 대해 묻고 있다.

→ '연예인을 보니 그렇게 좋던?' = '연예인을 보니 그렇게 좋더냐?'

★ 오답 해설:

① 상대방이 듣고 온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해 주길 바라고 있다.

→ '내일 야유회 간데요?'

② 과거에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한 느낌이다.

→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데.'

④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한 스스로의 느낌이다.

→ '제가 직접 봤는데 너무 크데요.'

문 2.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 ① 그 사고는 여러 가지 규칙을 도외시 하엿기 때문이야.
- ② 사실상 여자 대 남자의 대리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
- ③ 반드시 거기에 가겠다고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
- ④ 금연을 한 만큼 네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지 궁금해.

★ 정답: ③

★ 문항해결법: 한글맞춤법 - 띄어쓰기

띄어쓰기는 붙여 쓰는 경우와 띄어 쓰는 경우,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을 암기하는 것이 첫째, 품사 통용을 하거나 형태가 같은 어미, 조사, 의존명사, 접사 등의 의미를 나누어 쟁점에 대비하는 것이 둘째, 다양한 문제로 연습하는 것이 셋째입니다.

★ 정답 해설:

대로: '내키는'의 수식을 받는 '대로'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옳다.

안 돼: '옳지 않다'는 금지 의미를 가지는 '안 돼'는 띄어 쓰는 것이 옳다.

안되다1(동사): ①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잘되다) ② 일정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 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과일 농사가 안되었다. 자식이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우리 중 안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것 같다.	안√되다 예)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합격이 안√되다.
안되다2(형용사): ① 가엾어 마음이 연짱다 ② 얼굴이 많이 상하다 예) 혼자 보내기가 안돼서 역까지 배웅했다. 안색이 안돼 보여서 보약을 지어 보냈다.	

★ 오답 해설:

① 여러 가지: '사물을 그 성질이나 특징에 따라 종류별로 낱말이 헤아리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도외시하엿기: '상관하지 아니하거나 무시하다'의 의미로 파생되어 동사로 등재되었으므로 붙여 쓴다.

② 사실상: '-상(上)'은 일부 명사 뒤에서 '그것과 관계된 입장' 또는 '그것에 따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쓴다.

남자 대 여자: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한글맞춤법 5장 2절 45항)

☆대리전으로밖에는: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어울리는 '밖에는'은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한글 맞춤법 5장 1절 41항)

④ 금연을 한 만큼: '금연을 한'의 수식을 받는 '만큼'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회복될지: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문 3. 밑줄 친 조사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 면적은 설계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② 제안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 한하여 교부한다.
- ③ 관계 조서 사본을 관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인다.
- ④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평가는 1년 유예를 둔다.

★ 정답: ②

★ 문항해결법: 이론문법 - 형태론 - 조사

조사의 종류로는 크게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습니다. 격조사 아래는 주격, 목적격, 보격, 부사격, 관형격, 서술격, 호격의 분류가 있습니다. 보조사 아래에는 접속 보조사와 표별 보조사의 분류가 있습니다. 접속조사에는 문장 접속과 단어 접속이 있죠. 문장에서 밑줄의 위치에 어떤 조사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술어를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 정답 해설:

→ 제안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 한하여 교부한다.

'한하다'는 '어떤 조건, 범위에 제한되거나 국한되다.'라는 의미로, 부사격 조사 '~에'를 쓰는 부사어를 요구한다.

★ 오답 해설:

① '정하다'는 '설계도에서 기준을 정하다'라는 문장의 서술어이다. '에서'는 출처를 의미하는 부사격 조사이다.

- ② '비치하다'는 목적어(관계 조서 사본)를 놓을 공간(관리 사무소)을 표현하기 위해 부사적 조서 '에'를 쓴다.
- ④ '불구하고'는 '-에도/-음에도/-나에도' 뒤에서 '얼마어 거리까지 아니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문 4. 다음 글에서 경계하고자 하는 태도와 유사한 것은?

비판적 사고는 지엽적이고 시시콜콜한 문제를 트집 잡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중요한 대상으로 삼는다. 비판적 사고는 제기된 주장에 어떤 오류나 잘못이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 지엽적인 사항을 확대하여 문제로 삼는 태도나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 ① 격물치지(格物致知)
- ② 본말전도(本末顛倒)
- ③ 유명무실(有名無實)
- ④ 돈오점수(頓悟漸修)

★ 정답: ②

★ 문항해결법: 독해(주제) + 섭어

이 문항은 발문(글에게 경계하고자 하는 태도)을 잘 읽고 지문을 독해하여 글쓴이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독해 실력이 성어 지식보다 더 중요했습다.

★ 정답 해설:

'비판적 사고'는 문제의 핵심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지엽적인 사항에 집착하는 '본말전도(本末顛倒): 처음과 나중에 뒤바뀐, 일의 근본은 잊고 사소한 부분에만 사로잡힘'을 경계하고 있다.

★ 오답 해설 :

- ① 격물치지(格物致知): 실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완전하게 함.
- ③ 유명무실(有名無實):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음
- ④ 돈오점수(頓悟漸修): 문득 깨달음에 이르는 경지에 이르기까지에는 반드시 점진적 수행단계가 따른다는 말.

문 5. 다음을 논리적 순서로 배열한 것은?

ㄱ. 그 덕분에 인류의 문명은 발달될 수 있었다.

ㄴ. 그 대신 사람들은 잠을 빼앗겼고 생물들은 생체 리듬을 잃었다.

ㄷ. 인간은 오랜 세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 조건을 맞추어 왔다.

ㄹ. 그러나 밤에도 빛을 이용해 보겠다는 욕구가 관솔불, 등잔불, 전등을 만들어 냈고, 이에 따라 밤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이 점점 많아졌다.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ㄴ - ㄱ - ㄷ - ㄹ
- ③ ㄷ - ㄹ - ㄱ - ㄴ
- ④ ㄹ - ㄷ - ㄴ - ㄱ

★ 정답: ③

★ 문항해결법: 독해(배열)

와... 진짜 이 문제는 어이가 없습니다. 여백이네요. 'ㄷ'을 제외한 모든 문장이 표지(접속 부사나 지시어)로 시작하니 맨 앞에 올 수 없습니다. 배열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아도 정답이 나옵니다. 성실하게 풀 수험생들이 손해를 보는 문제네요. 그래도 지방직은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 정석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배열 문제는 꼭 한 문제씩 나오고 있죠? 이 유형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고 훈련하면 이 유형 같은 점수밭이 없습니다. 퍼즐 맞추듯 각 부분의 접속부사와 지시어(이, 그지)를 체크하고, 반복되는 중요 개념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뒤 반드시 붙는 조각들과 앞뒤의 종속적 관계가 확실한 순서를 확인하고 선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객관식이니까요.

★ 정답 해설:

ㄱ. <그 덕분에> **인류의 문명**은 발달될 수 있었다.

→ 앞에 '인류의 문명'이 발달되는 데 기여한 것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ㄴ. <그 대신> **사람들은 잠을 빼앗겼고** / **생물들은 생체 리듬을 잃었다.**

→ '빼앗겼다'와 '잃었다'는 내용이니, 앞에는 반대 내용(얻은 것)이 나왔을 겁니다.

ㄷ. 인간은 오랜 세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 조건**을 맞추어 왔다.

→ 중심 키워드에 체크하세요

ㄹ. <그러나> 밤에도 빛을 이용해 보겠다는 **욕구가 관솔불, 등잔불, 전등을 만들어 냈고**, / 이에 따라 **밤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이 점점 많아졌다.**

→ 인간의 욕구로 이론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의 발달에 도움이 되겠지요 뒤에 '기' 나올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앞에는 '과'와 연결하는 내용이 나왔을 테니 '밤'에 순응하는 내용인 'ㄷ'이 오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ㄷ - ㄹ - ㄱ - ㄴ이 가장 적절한 배열입니다.

문 6. 리더십 부재와 잘못된 정책을 '등산'에 빗대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말이 많으면 어느 산을 오를 것인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 ② 등산로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길잡이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등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 ③ 길잡이가 방향을 잘못 가리키고 혼자 가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오를 수 없어 등산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 ④ 등산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봉우리에 올랐다는 기쁨 그 자체이므로 길잡이는 항상 등산하는 사람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정답: ③

★ 문항해결법: 쓰기(조건 표현)

이 유형은 조건에 맞춰 가장 잘 표현한 것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문항은 주제(리더십 부재와 잘못된 정책)를 유추 표현하면 되는 것이었지만, 때로는 보기를 주고 내용 조건이나 형식 조건을 여러 가지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형식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먼저 소거한 뒤에 내용 조건에서 가장 합당한 것을 고르는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 정답 해설:

리더가 없거나 리더의 리더십이 부족하면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 그것은 등산의 과정에서 '길잡이'가 없거나 '길잡이'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다.

★ 오답 해설 :

- ① 리더십이 부재하는 경우가 아니라 리더가 너무 많거나 조직 내의 의견이 분분할 때 적절한 표현이다.
- ② 용감한 리더가 성공을 이끄는 긍정적 경우를 표현한 것이다.
- ④ 경쟁을 이끄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라는 내용이다. .

문 7.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진리가 사상의 체계에 있어 제일의 덕이듯이 정의는 사회적 체도에 있어 제일의 덕이다. 하나의 이론은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간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 참되지 않다면 거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는 그것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정의롭지 않다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 ① 의지의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인간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고 보아야 한다.
- ② 여자는 생각하는 것이 남자와 다른 데가 있다. 남자는 미래를 생각하지만 여자는 현재의 상태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남자가 모험, 사업, 성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여자는 가정, 사랑, 안정성에 비중을 두어 생각한다.
- ③ 우리 강아지는 배를 문질러 주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버려. 그리고 정말 기분 좋은 듯한 표정을 짓지. 그런데 내 친구 강아지도 그렇더라고. 아마 모든 강아지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 ④ 인생은 여행과 같다. 간혹 험난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않은 일을 당하기도 한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생을 끝내고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더없이 편안해질 것이다.

★ 정답: ④
★ 문항해결법: 독해(전개 방식)
 비문학 지문의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의, 확인, 비교, 대조, 유추, 분류, 분석, 예시 등의 전개 방식 이론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하여야 지문을 보았을 때 해당되는 전개 방식을 떠올리고 선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정답 해설:
 지문은 '하나의 이론'과 '법과 제도'를 유추(유비추론: 하나의 현상과 다른 한 개 이상의 현상들이 기본 속성이나 관계, 구조, 기능 등에서 유사하거나 동형임을 들어 다른 요소들에 있어서도 유사하거나 동형일 것이라 추리하는 방법)하고 있다.
 선지 ④ 역시 '인생'을 '여행'에 유추하고 있다.
★ 오답 해설 :
 ① 보다 기본적인 전제에 기대어 결론을 추론하는 연역적 추론을 활용
 ② 대조의 전개 방식을 활용
 ③ 구체적 사례를 모아 일반론을 형성하는 귀납적 추론을 활용

문 11.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하나에 백 원씩 쳐주마.
- ② 여름이 되니 몸이 축축 쳐지네.
- ③ 아궁이에서 쓰레기를 쳐대고 있지.
- ④ 오는 길에 쳐박힌 자전거를 보았어.

★ 정답: ①
★ 문항해결법: 한글맞춤법 - 접사 '쳐-'와 동사 '치다'
 '쳐-'는 '마구', '뺨이'라는 의미의 접두사입니다.
 동사 '치다'가 활용하여 '치어'가 된 뒤 줄면 '쳐'의 형태가 되는데, 이때 받음이 [치]가 되기에 접사 '쳐-'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접사 '쳐-'와 동사 '치다'의 의미를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기출에 '피아노가 잘 안 쳐져요.'는 표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치다'의 피동 형태인 '치어지다'의 준형태 '쳐지다'를 해요체로 표현한 것이니 '쳐져요/쳐져요'가 맞는 선지였습니다.
★ 정답 해설: 쳐주다 : 치다(셈을 맞추다)+주다 = 셈을 맞추어 주다.

★ 오답 해설:
 ② 처지다 : 위에서 아래로 축 늘어지다.
 ③ 처대다 : 함부로 불에 대어서 살라 버리다.
 ④ 처박히다 : '쳐박다'의 피동사
 처박다 : 1. 매우 세게 박다. 2. 함부로 막 박다.
 3. 마구 쑤셔 넣거나 폭 밀어 넣다.

문 12. 밑줄 친 부분 중 보조 용언이 결합되지 않은 것은?

- ① 창문 너머로 날이 밝아 온다.
- ② 동생이 내 과자를 먹어 버렸다.
- ③ 우체국에 들러 선배의 편지를 부쳐 주었다.
- ④ 그는 환갑이 지났지만 40대처럼 젊어 보인다.

★ 정답: ④
★ 문항해결법: 이론문법 - 형태론 - 본 용언과 보조 용언
 '본 용언 + 본 용언'의 관계는 각 용언의 독립적 의미를 가지는 반면, '본 용언 + 보조 용언'의 관계는 '보조 용언'이 '본 용언'의 의미를 보조합니다.
 한편하게 이 두 관계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아서/-어서'라는 연결 어미를 넣어 분리 독립되면 '본+본'이라고 보는 방법과 보조 용언을 지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답인 '젊어 보인다' 역시 '젊어서 보인다'는 어색한 경우이므로 이 방법으로는 다른 선지와 변별이 되지 않습니다. '보이다'를 지워 '젊다'는 것과 '젊어 보인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정답 해설: '젊어 보인다'의 '보이다'
 「...으로,-게」(「...으로」나 「-게」 대신에 평가를 뜻하는 다른 부사어가 쓰이기도 한다) '보다1(대상을 평가하다)'의 피동사.
 '대상을 평가하다.'를 뜻하는 '보다'의 피동사인 '보이다' 앞에는 '으로', '-게' 성분이 오기도 하고, '처럼', '-아/-어' 성분이 오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 성분들은 모두 평가를 뜻하는 말로, 이들 뒤에 '보이다'가 연결될 때 문맥상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해설:
 ① '밝아 온다'의 '오다':
 (주로 동사 뒤에서 '-어 오다' 구성으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기준으로 가까워지면서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
 ② '먹어 버렸다'의 '버리다':
 (동사 뒤에서 '-어 버리다' 구성으로)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 그 행동이 이루어진 결과, 말하는 이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거나 또는 반대로 부담을 덜게 되었음을 나타낼 때 쓴다.
 ③ '부쳐 주었다'의 '주다':
 (동사 뒤에서 '-어 주다' 구성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

문 13. 밑줄 친 부분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세 시간이 흐르도록 분분했던 의견들이 마침내 하나로 합치하였다.
- ② 아무리 논리적 사고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다.
- ③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보여주는 겉손은 가끔 오만으로 비칠 수도 있다.
- ④ 결미에 제시된 결론이 모두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을 맺는다면 좀 더 긴밀한 구성이 될 것이다.

★ 정답: ②
 ★ 문항해결법: 어휘의 의미 관계(한자어)
 어휘의 의미 관계에는 동음이의관계, 다의 관계, 유의 관계, 반의 관계(상보/정보/방향), 상하 관계, 전체 부분 관계 등이 있습니다. 이 이론적 개념을 아는 것이 유형 해결의 첫째이고, 둘째는 선지에 제시된 해당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요, 정확한 어휘의 의미를 모를 때에는 문맥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 정답 해설: '사고(생각하고 궁리함.)'에 '비판(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이 따른 것이다. 문맥에서는 '자극과 반응'의 관계이지만 어휘 관계로는 상하 관계이다. '비판'도 '사고'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 오답 해설:
 나머지 선지는 모두 반의 관계이다.
 ① 분분(紛紛): 소문, 의견 따위가 많아 갈피를 잡을 수 없다.
 합치(合致): 의견이나 주장 따위가 서로 맞아 일치함.
 ③ 겸손(謙遜):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오만(傲慢):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함. 또는 그 태도나 행동.
 ④ 결미(結尾): 글이나 문서 따위의 끝 부분.
 모두(冒頭): 말이나 문장의 첫머리.

문 14. 밑줄 친 사자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결단력이 없어 좌고우면(左顧右盼)하다가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쳐 버렸다.
- ② 다수의 기업이 새로운 투자보다 변화에 대한 암중모색(暗中摸索)을 시도하고 있다.
- ③ 그 친구는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경향이 있어서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 ④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한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마찬가지이다.

★ 정답: ④
 ★ 문항해결법: 문맥에 적절한 성어
 이 유형은 성어의 의미만 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에 주어진 상황에 성어가 적합한지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를 이용하여 선지를 끊어 읽으면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정확해지고 성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문장에서의 위치도 적절한지 파악하기가 쉬워집니다. .
 ★ 정답 해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한' 상황이므로 놀랍고 대단하며 희귀하다는 성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목구어'는 부적절하다.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 고기를 얻으려고 한다는 뜻으로, 목적과 수단 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하는 말.
 ★ 오답 해설:
 ① 좌고우면(左顧右盼):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결눈질한다는 뜻으로, 어떤 일에 앞뒤를 재고 결단을 망설이는 태도.
 ② 암중모색(暗中摸索):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찾는다라는 뜻으로, 어렵진 작으로 추측하거나, 당장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막연한 상태에서 해법을 찾는 것.
 ③ 침소봉대(針小棒大): 바늘처럼 작은 일을 몽둥이처럼 크게 부풀려 허풍을 떠는 모습.

문 15.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삼동(三冬)에 ㉠ 베옷 입고 암혈(巖穴)에 ㉡ 눈비 맞아 구름 낀 별뿔도 꺾 적이 없건마는
 ㉢ 서산에 해 지다 하니 ㉢ 눈물겨워 하노라.

- ① ㉠ : 화자의 처지나 생활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 ② ㉡ : 화자와 중심 대상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 ③ ㉢ : 화자가 머물고 있는 공간과 구별되는 공간이다.
- ④ ㉢ : 상황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직접 표출되고 있다.

★ 정답: ②
 ★ 문항해결법: 고전문(시조) 시어의 의미 해석
 모든 시조를 외우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주요 시조들을 통해 고전 운문에서 주로 쓰는 관습적 표현이나 한정적인 주제들, 자주 쓰이는 상징물의 쓰임을 알아둘 수 있습니다.
 [현대어 풀이] 조식의 시조
 한겨울에 베옷을 입고 바위 굴 속에서 눈비를 맞으며
 - 벼슬하지 않고 은둔하는 화자의 처지
 구름에 가려진 햇살도 꺾 본 적이 없건마는
 - 임금의 은총(햇살)을 누리지 못한 화자
 서산으로 해가 진다고 하니 눈물이 나는구나!
 - 임금이 승하(해가 썩)를 슬퍼하는 화자
 ★ 정답 해설: '눈비'도 '베옷'이나 '암혈'처럼 은둔하며 속세를 떠나 지내는 화자의 처지를 보여주는 시어이다.
 ★ 오답 해설 :
 ① '베옷'은 벼슬하지 않은 화자의 상황을 의미한다.
 ③ ④ '서산'에서 '해(임금)'가 진다는 소식을 듣고 있으니 '서산'은 화자가 머무르는 곳은 아니며, 승하하신 임금이 계시던 '속세'를 의미한다. 화자는 임금의 승하를 슬퍼하고 있다.

문 16. ()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개살구', '잠', '새파랗다' 등은 어휘 형태소인 '살구', '자-', '파랑-'에 '개-', '-로', '새-'와 같은 접사가 덧붙어서 파생된 단어들이다. 이처럼 직접 구성 요소 중 접사가 확인되는 단어들을 '파생어'라고 한다. 반면, () 등은 각각 실질적 의미를 지닌 두 요소가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된 경우인데, 이를 '파생어'와 구분하여 '합성어'라고 한다.

- ① 고추장, 놀이터, 손짓, 장군감
- ② 면도칼, 서릿발, 선동이, 장난기
- ③ 깎두기, 선생님, 작은형, 핫바지
- ④ 김치찌개, 돌다리, 시나브로, 암탕

★ 정답: ①
 ★ 문항해결법: 이론문법 - 형태론 - 단어의 형성법(합성과 파생)
 이 문항은 지문에서 이론적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였습니다. 어려웠다면 이론 때문이 아니라 제시된 선지의 어휘들이 어근과 어근의 합인지, 접두나 접미에 의한 파생인지 판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론을 이해하더라도 국어의 어휘에 존재하는 접두사와 접미사들을 어느 정도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외워 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
 ★ 정답 해설: 모두 합성어이다.
 고추+장(간장, 고추장, 된장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명사)
 놀이+터(일부 명사 뒤에서 '자리'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
 손+짓(몸을 돌려 움직이는 동작을 이르는 명사)
 장군+감(일부 명사 뒤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

★ 오답 해설 :

- ② 면도+칼, 서리+(사사이시웃)+발 = 합성어
 선-둥이: 나이가 선이 넘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로, '-둥이'는 '그러한 성질이 있거나 그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장난-기(氣): '-기'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기운', '느낌', '성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 ③ 깎두-기: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한글맞춤법 4장 3절 23항)
 선생-님: '-님'은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작은-형: '작은-'은 주로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어 '말이 가벼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핫-바지: '핫-'은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숨을 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④ 김치+찌개 = 합성어, 돌+다리 = 합성어, 시나브로 = 단일어
 암-탸: 암탸를 이르는 접두사 '암-'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하므로 '암탸'를 표준어로 삼는다. (한글 맞춤법 4장 4절 31항, 표준어규정 1장 1절 7항)

문 17. 다음 글을 읽는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인문학은 세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해석과 시각을 제공한다. 인문학이 해석하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현대 사회는 사회의 복잡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다양한 정보 통신 기술이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를 혁신적으로 바꾸면서 사람들 사의 새로운 상호 의존 관계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매일 매일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 나아가 지구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타인과의 상호 관계가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인문학은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 ① 현대 사회에서 인문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어.
- ②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 ③ 과거와 현대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대조하면서 현대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어.
- ④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타인과의 소통에 장애가 생긴다는 점을 현대 사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말하고 있어.

★ 정답: ①

★ 문항해결법: 독해(내용 확인)

'독자의 반응'이라는 발문으로 지문에 담겨 있는 내용과 전개 방식을 한꺼번에 확인하는 유형입니다. 긍정 발문이므로 선지를 먼저 읽지 말고, 지문을 읽으며 요약하세요. 물론 주제에 이르기까지 활용된 전개 방식도 살피도록 합니다.

★ 정답 해설:

지문의 주제는 '인문학이 과거와는 다른 현대 사회에 대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해석과 시각(실질적 지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인문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②④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인문학'이지 '현대 사회'가 아니다.
- ③ 과거와 현대 사회가 다르다는 언급은 있으나 이것을 대조하는 것이 글의 목표는 아니다.

문 18.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위: %, 중복 응답)

인터넷의 순기능	88.4	59.0	46.6	13.1	12.9
	다양한 정보의 습득	편리한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교육 및 여가 활용	다양한 의견의 장	다양한 동호회 참여 및 활동
인터넷의 역기능	84.3	83.9	56.2	16.1	10.2
	욕설,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성인 음란물 유통	개인 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반국가 행위

- ① 인터넷을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음을 서술한다.
- ②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안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 ③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인터넷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④ 인터넷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할 것을 주장한다.

★ 정답: ④

★ 문항해결법: 쓰기(자료 활용)

자료 활용은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지만, 9급 수험생들에게는 생소했을 것입니다. 쓰기에서는 주로 조건 표현이나 개요가 출제되어 왔기 때문이죠. 앞으로 수능 유형의 범위까지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이 유형은 먼저 그래프나 자료부터 해석한 뒤에 선지 해석에 들어가야 합니다. 선지를 먼저 본 뒤에 자료를 해석하면 자료를 왜곡할 확률이 높습니다.

★ 정답 해설: '인터넷의 역기능'에서 '욕설이나 비방, 허위 사실 유포'를 확인할 수 있으나, 자료에는 '인터넷의 순기능'도 있으므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주장은 자료를 활용한 글쓰기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 ① '인터넷의 순기능'에서 '다양한 정보의 습득'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인터넷의 역기능'에서 '개인 정보 유출'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인터넷의 역기능'에서 '저작권 침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 19. <보기>를 참고하여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용악은 1945년 해방이 되자 고향인 함경북도 경성에 가족을 두고 홀로 상경한다. '그리움'은 몹시 추웠던 그해 겨울밤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쓴 시이다.

눈이 오는가 ㉠북쪽엔 /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이용악, '그리움' -

- ① ㉠은 자신이 떠난 공간인 고향을 가리키는 것이겠군.
- ② ㉡은 고향에 남겨 두고 온 가족을 의미하는 표현이겠군.
- ③ ㉢은 극심한 추위 속에서도 가족을 떠올리는 시간이겠군.
- ④ ㉣은 그리운 이를 볼 수 없는 화자의 절망적 심정을 투영한 대상물이겠군.

★ 정답: ④
 ★ 문항해결법: 현대 운문 시어의 의미 해석
 시는 부분(시어)으로 전체(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시)를 읽어야 부분(시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시는 "A+B⇒A+B"가 아니라 "A+B⇒A+B+α"입니다. 시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선지에서 물어보는 시어나 시구의 의미를 시 분석하는 도중에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물론 화자의 정서나 태도와 관련된 시어나 시구(예를 들어 기쁘다, 슬프다)의 '긍정/부정' 정도는 분석 중에 파악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상징 시어나 비유 시어는 꼭 전체를 보고 부분을 파악하자는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보기를 준 유형은 보기를 반드시 참고하도록 합니다.
 ★ 정답 해설: <보기>를 통해, 시의 주제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쪽', '작은 마을', '그리운 곳'은 고향이며, 남기고 온 '너'는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잉크병이 얼어드는' 추운 밤에 깨어 가족이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잠'은 '그리움'에서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잠'을 깨어 괴로운 것이다. 화자의 감정을 투영하려면 감정이입된 대상물이 필요하다.

문 20. 다음 글에 나타난 '그림 : 액자'의 관계와 가장 비슷한 것은?

2000년이 된 기념으로 ○○화랑에서 화가 200인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큐레이터가 보내 준 카탈로그를 보고 전화로 김○○ 화백의 그림을 바로 예약했다. 큐레이터는 "작품이 작는데 병 속에 세 명이 들어가 있어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나는 내가 설정한 '가족'이라는 주제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구입하기로 하였다.
 전시회가 끝난 뒤 작품을 받아 보니 액자가 그림보다 훨씬 컸다. 이렇게 액자가 크니, 큐레이터의 걱정과는 달리 그림이 답답해 보이지는 않았다. 이것이 바로 '액자의 힘'이다. 내가 아는 어떤 애호가는 좋은 액자를 꾸준히 모은다. 갖고 있는 그림의 액자를 바꿔기 위해.

- ① 유명 인사들의 사회적 성공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그들은 그 요인으로 하나같이 좋은 습관을 둔다. - '성공 : 습관'
- ② 나는 가끔 책을 장난감 블록처럼 다양하게 쌓아 본다. 책의 무게, 진부함, 지루함을 해소하고 즐겁고 유쾌하게 책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 '책 : 장난감 블록'
- ③ 로맹은 돌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움직여 돌 속의 손을 깎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실패하지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로맹은 다시 새 돌을 꺼내 바라봅니다. - '돌 : 손'
- ④ 인간은 단 몇 초 만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를 결정한다고 한다. 몇 초 만에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내면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옷차림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 '내면 : 옷차림'

★ 정답: ④
 ★ 문항해결법: 독해(문맥 추론)
 문맥 추론 유형은 지문 전체의 주제를 파악한 뒤, 해당 어휘의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더욱이 어휘의 문맥적 의미 간 관계를 묻는 문제는 두 어휘가 서로 주고 받는 영향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A:B'로 표현되었을 때 앞뒤 헛갈리지 마시고요.
 ★ 정답 해설: 지문에서 '액자'는 '그림'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따라서 'B는 A를 돋보이게 한다'는 관계를 찾으면, '옷차림'은 '내면'을 돋보이게 한다는 ④가 정답이다.
 ★ 오답 해설:
 ① B가 A를 만든다, B는 A의 요인이다.
 ② A를 B처럼 여기다. A=B
 ③ A 속에 B가 있다, 혹은 B로 A를 만든다.

2016 나래국어 연간 커리큘럼

1. 완전기초 단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나래국어 - 실용국어 (32시간)

-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국어
- 기본 수업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중의 기초 강의
- 종합반을 들어가기 전 대형 수업에 대비하거나
- 종합반을 듣고 나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강좌

2. 개념완성 단계

7.9급 재정국어 - 전범위 (32시간)

- 일반적으로 전범위를 다루주는 개념 강좌
- 현장에서 종합반에 해당하는 강의

3. 심화+문항적용 단계

기적을 만드는 나래국어 - 영역별 시리즈 (총 84시간)

- ① 20시간으로 끝내는 문법과 규정
- ② 32시간으로 끝내는 독해알고리즘
- ③ 16시간으로 끝내는 교과서 문학 작품
- ④ 16시간으로 끝내는 어휘/속담/성어/한자

4. 기출 문풀 단계

① 나래 핵심이론+기출N제 (32시간)

- 출제 요소별로 겹치지 않게 정리된 필수기출 속성 해결

② 나래 기출 침착 프로젝트 - 빈출코드 160 (48시간)

- 기출 빈출 코드 문항의 해설을 직접 써보는 프로젝트

5. 예상 문풀 단계

맥 - 단원별 고난도 문풀

- 단원별 고난도 기출과 예상 문제로 실전에 대비

6. 동형 모의고사 단계

① 나래 일타이퍼 모의고사

- 적중 예상 문제와 독해 방법론을 한번에!

② 나래 탁치고 고득점 모의고사

- 고득점을 위한 수준 높은 모의고사